

# 붓다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



## 붓다의 가르침 —경전의 말씀—



35 세 때 깨달음을 얻어 붓다 (불타, 佛陀) 의 경지에 도달해 불교의 개조가 된 석가모니 부처님 (석존, 釋尊) 은, 80 세에 입멸 하시기까지의 45 년간, 인간의 평등을 강하게 주장 하셔서, 그 누구도 이해하기 쉽게, 사람들의 능력과 환경에 따라서 적절한 비유를 마지어 알기 쉽게 가르침을 설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신 (입멸, 入滅) 후, 그의 가르침을 후세에도 남기기 위해서, 주요한 제자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편찬해 기록한 가르침으로서의 성전 (경전) 이 성립 되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경전으로서 현대에 전해져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의 정신적인 의지 처 가 되었으며, 현실 생활과 실제적인 마음에 접 할 수 있는 살아 있는 지침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충족 시켜 주고 있습니다.

## 시작하는 글

세계의 불자님들이 공통으로 중히 합창 계승 하고있는 「삼귀의문(三歸依文)」이라는 서원이 있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 합니다  
거룩한 가르침께 귀의 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 합니다

부처님(불, 佛)은, 역사상의 인물로서의 붓다(석가모니불=석존, 釋尊)입니다만, 붓다의 마음은 진리로서 우리들 에게도 베풀어 주시며 마음 속 깊은 의식을 일깨워 주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상이 된 각양 각색의 부처님의 형상입니다.

가르침(법, 法)은, 붓다가 설하신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자신의 마음속 깊이 있는 진리로서 들리는 것으로서 마음 속 깊이 있는 진실을 각성시키는 것을 글로서 전해주는 것이 경전입니다.

스님(승, 僧)은, 원래는 석가모니 부처님에게 모인 제자들의 그룹을 의미 했습니다. 부처님에 의해서 설해진 가르침 「법, 法」에 의거해 진리를 실천하고 있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부처님과 가르침, 성스러운 스님이라고 하는 세계의 보물(삼보, 三寶)를 믿는 것(귀의, 歸依)은 자신의 생각을 훨씬 초월한 위대한 진실 앞에 겸허함을 유지함에 의해 자신의 작은 마음이 크나큰 진실의 세계로 확충되어 감을 의미 하는 것입니다.

# 인생에 대한 의문

## —젊은 태자의 고뇌—

히말라야 산의 남쪽 기슭을 흐르는 로히니강가에 석가족의 수도 카필라가 있었다. 왕의 이름은 슛도다나인데, 대대로 순수하고 반듯한 혈통을 이어온 자로서 튼튼하게 성을 쌓고 선정을 베푸니 백성은 기뻐하며 그를 따르고 있었다. 왕의 성은 고타마였다.

왕비 마야부인은 같은 석가족의 일족으로 고리야족이라 불리우는 데바다하성의 공주이며 왕의 사촌 누이 동생이었다.

결혼 후, 오랫동안 자식을 얻지 못하여 20 몇 년의 세월이 지난 어느 날 밤 하얀 꼬끼리 한 마리가 오른쪽 옆구리로부터 태내에 들어오는 꿈을꾸고 잉태하였다. 왕의 일족을 비롯하여 백성들이 한결같이 손꼽아 태자의 탄생을 기다렸는데 산달이 다가오자 왕비는 나라의 관습에 따라 친가로 돌아가다가 룬비니 동산에서 휴식을 하였다. 때마침 봄별은 따뜻하여 아쇼카의 꽃들은 아름답게 피어 있었다. 왕비는 오른손을 들어올려 그 가지를 꺾으려 할 찰라에 태자를 낳았다. 온 세상이 기쁨에 휩싸여 그 모자를 경축하였다. 때는 마침 4 월 8 일이었다.

슛도다나왕의 기쁨은 이를 데 없어 일체의 원이 성취 되었다는 뜻의 ‘싯다르타’ 라는 이름을 태자에게 지어 주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였고 슬픔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태자를 낳은 마야 부인은 얼마 뒤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 태자는 마야 부인의 누이 동생인 마하프라자파티의 품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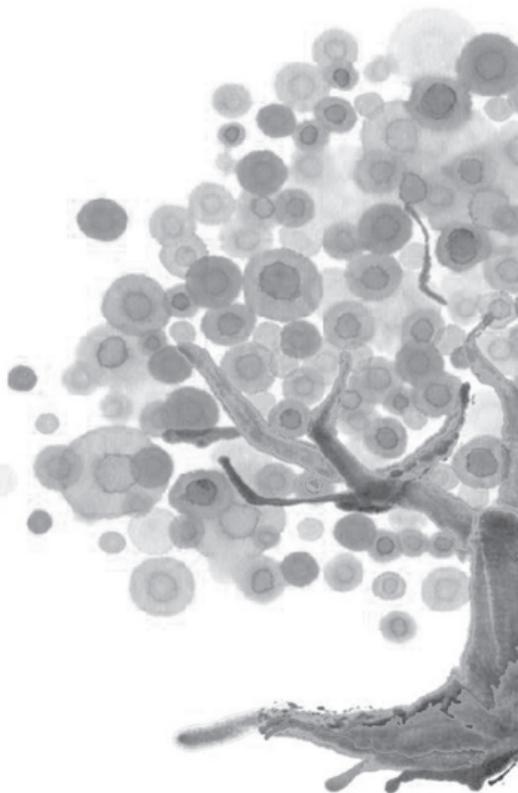
태자는 일곱 살 때부터 문무의 도를 배웠다. 어느 봄날에 태자는 부왕을 따라 전원에서 벌어드리는 행사에 참석하였다. 그곳에서 농부들이 밭갈이 하는 광경을 보고 있을 때에 가래 끝에 갈려 나온 벌레를 새가 날아와서 쪼아먹는 것을 보고 “가엾어라! 살아있는 것들은 서로 죽이는구나.” 라고 중얼거리며 홀로 나무 그늘 밑에 앉아 깊은 사색에 빠져 들었다.

태어난지 얼마 안되어 어머니와 사별 하였고 이제 또 살아 있는 것들이 서로 죽이는 광경을 보자 태자의 마음 속에는 벌써 인생의 고뇌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마치 어린 나무에 새겨진 상처처럼 날로 성장하여 태자를 더욱 어두운 생각으로 몰고 갔다.

태자가 19 세가 되던 해, 야쇼다라를 태자비로 맞이하여 혼례를 올려주었다.

그 후 10 년간 태자는 춘계, 추계, 우계에 궁전에서 춤과 노래와 악기 소리에 휘감겨 즐거운 생활을 보냈으나, 그 쾌락 속에서도 늘 마음 속으로 깊이 사색하며 인생을 알아보려고 고심하였다.

“궁전의 영화도 건강한 이 육체도 사람들로 부터 부러움을



받는 이 젊음도 도대체 나에게 무엇이란 말인가. 사람은 병들고 언젠가는 늙는다.

죽음을 면할 수는 없다. 젊음도, 건강도, 산다는 것도 어떠한 의미를 갖는단 말인가.

인간이 살고 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인가를 구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구하는 것에는 잘못된 것을 구하는 것과 바른 것을 구하는 두 가지가 있다.

잘못된 것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벗어나지 못한 채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바른 것을 구한다는 것은 이 잘못을 깨달아서 늙음과 병듦과 죽음을 초월한 인간의 고뇌의 모든 것을

여윈 경지를 구하는 것이다. 지금의 나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마음을 괴롭히며 지내는 사이에 세월은 흘러 태자의 나이가 29 세 되던 해, 속세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출가의 몸이 되었다. 태자는 머리를 깎고 탁발을 하면서 남쪽으로 내려 갔다.



태자는 처음에 선인을 찾아가서 그가 담고 있는 고행을 진지하게 살펴보고 몸소 그것을 실행해 보았다.

그러나 그것들은 결국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아님을 깨달은 태자는 마가다국으로 가서 격렬한 고행을 했던 것이다.

그것은 그야말로 무서운 고행이었다. 그러나 이 고행도 태자가 구하는 것을 주지 못했다. 그래서 태자는 6 년이라는 긴 세월에 걸친 이 고행을 미련 없이 던져 버렸다. 강에서 목욕하여 몸의 더러움을 씻어낸 뒤에 우유죽을 받아 마시고 건강을 회복 하였다.

태자는 조용히 나무 밑에 단정히 앉아 목숨을 걸고 최후의 사유에 들어갔다.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는 나는 이 자리를 뜨지 않으리라.”

그 날 태자의 마음 속에서는 비유할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한 싸움이 벌어졌다. 그야말로 피가 튀고 살이 벗겨지며 뼈가 부수어지는 악전고투였다.

그러나 동틀 무렵 새벽의 명성을 쳐다 봤을 때 태자의 마음은 찬란히 빛났다. 깨달음을 열어 부처가 된 것이다. 그것은 태자가 35 세가 되던 해의 12 월 8 일 아침에 일어난 일이었다.

이때부터 태자는 붓다, 무상각자, 여래, 석가모니석존, 세존 등의 여러 이름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부처님의 마음은 대자대비하시다. 대자심은 온갖 수단에 의하여 모든 사람들을 구하려는 마음이고, 대비심은 다른 사람과 함께 앓고 함께 괴로워하는마음이다.

마치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처럼 잠깐 동안이라도 버리는 일이 없이 지키고 키우고 구해내는 것이 부처님 마음이다. “너의 괴로움은 나의 괴로움이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 이며 잠시도 버리는 일이 없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생기고, 이 대비를 느낀 자에게는 믿는 마음이 생기며, 믿는 마음에 의하여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것은 자식을 사랑함으로써 어머니임을 자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느껴서 자식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부처님의 마음도 모른 채 그 무지로부터 애착을 일으켜 괴로워하고, 번뇌에 휘감긴 채 괴로워한다. 죄업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거리며 미혹이 이 산 저 산을 힘겹게 타고 오른다.



『관무량수경』 『유마경』  
『수능엄경』 『대반열반경』

깨달음의 언덕에 서있는 부처님은 미혹의 바다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그들의 귀에는 쉽게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부처님은 스스로 미혹의 바다로 뛰어들어가 그들을 구원할 온갖 수단을 강구하셨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비유를 들려주리라. 어떤마을에 장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집에 불이 났다. 때마침 외출했다가 돌아온 장자는 너무나 놀라서 어린 자식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놀이에 정신이 팔려서 불 난 지도 모르고 집안에 머물러 있었다.

아버지는 어린 자식들을 향하여 “애들아! 모두 나오너라. 어서 도망쳐라.” 라고 소리쳤으나 아이들은 아버지의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아이들의 안부를 걱정한 아버지는 피를 내어 이렇게 말했다. “애들아! 여기 재미있는 장난감이 있다. 어서 나와 받아라.” 어린 아이들은 장난감이라는 말에 귀가 솔깃해져 불 난 집에서 뛰어 나왔다. 그렇게 해서 재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었다.”

이 세상은 그야말로 화택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집이 타고 있는 것을 모르고 타 죽을 지도 모를 공포 속에 살아간다. 그래서 부처님은 대비심으로 한 없는 여러 수단을 써서 사람들을 구원한다.



慈 悲 자비

『법화경 비유품』

## 네 가지 큰 서원

부처님의 자비가 오직 이번 한 생만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오래 전부터 있어온 것이다. 사람들이 태어나서 죽고,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며 이렇게 미혹을 거듭해 온 태초부터 지금까지 부처님의 자비는 이어오고 있다.

부처님은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들에게 가장 친밀한 모습을 나타내고 온갖 수단을 다하여 그들을 구제한다.

석가족의 태자로 태어나서, 출가하여 고행을 하고, 도를 깨치고 가르침을 설하고 죽음을 나타내 보였다.

사람들의 미혹은 한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일도 한이 없고, 사람들의 죄가 너무나 깊어 바닥이 없으므로 부처님의 자비에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부처님은 수행을 처음 시작하면서 네 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 (1) 은 모든 사람들을 구원 하기를 서원하고
- (2) 는 모든 번뇌를 끊을 것을 서원하고
- (3) 은 모든 가르침을 배울 것을 서원하고
- (4) 는 위 없는 깨달음을 얻기를 서원 하였다.



이 네 가지 서원을 바탕으로 부처님은 수행 하셨다. 부처님의 수행의 근본이 바로 이 서원 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온 마음이 그대로 사람들을 구하려는 대자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달이 구름에 가려지면  
사람들은 달이 졌다고  
말하고, 달이 구름 밖에  
나타나면 사람들은 달이  
떴다고 말한다. 그러나 달은  
항상 하늘에 머물렀으며  
출몰하는 일이 없다.  
부처님도 그와 같이 상주하여  
생멸하지 않는 것인데 오직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태어나고 죽는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다.



月 월

사람들은 달이 찬다든가 달이 기운다고 말 하지만 달은 항상  
차 있고 불어나거나 이지러지는 일이 없다. 부처님도 그와 같이  
상주하며 생멸하지 않는 것인데 오직 사람들의 보는 바에  
따라서 생멸이 있을 뿐이다.

달은 또 온 세상 만물에 모습을 드러낸다. 거리와 마을, 산과  
강, 연못과 물 향아리 속에도 모습을 드러내고, 풀잎사귀에  
매달린 이슬에도 드러낸다. 나그네가 백리 길을 가든 천리 길을  
가든 달은 항상 그를 따른다. 달 그것 자체에는 변함이 없으나  
달을 보는 사람에 따라 달은 달라진다. 부처님도 그와같이 세상  
사람들의 숫자 만큼 많은 모습을 보이시지만 부처님은 상주하여  
변하는 일이 없다.

『대반열반경』

인간 세계는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다. 태어남도 괴로움이며, 늙고 병들어 죽는 것도 다 괴로움이다.

원한이 있는 자가 서로 만나야 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또한 구하나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그야말로 집착을 떠나지 못하는 인생은 모두 괴로움이다.

이것을 ‘**괴로움이라는 진리 (고성제, 苦聖諦)**’ 라고 한다.

이 인생의 괴로움이 어째서 생기는가 하면, 그것은 인간의 마음에 붙어다니는 번뇌로부터 생긴다. 그 번뇌를 파고 들어가 보면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던 격한 욕망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괴로움의 원인이라는 진리 (집성제, 集聖諦)**’ 이라 말한다.

이 번뇌의 근본을 남김 없이 떨쳐 버리고 모든 집착을 여의면, 인간의 괴로움도 없어진다. 이것을 ‘**괴로움을 떨하는 진리 (고멸성제, 苦滅聖諦)**’ 라고 말한다.

이 괴로움을 떨쳐버리는 경지에 들려면, 여덟 가지 바른 길 (**팔정도, 八正道**) 을 닦지 않으면 안된다.

이들 여덟 가지는 욕망을 없애기 위한 ‘**바른 길이라는 진리 (도성제, 道聖諦)**’ 라고 말한다.

이들 네 가지 진리를 완전히 제 것으로 삼아야 한다.



苦 고통



集 집



滅 멸



道 도

## 여덟 가지 바른 길

번뇌의 근본을 남김없이 멸해버리고 모든 집착을 여의면, 인간의 괴로움도 없어진다.

이 괴로움을 멸해버리는 경지에 들려면, 여덟 가지바른 길(팔정도, 八正道)을 닦지 않으면 안된다. 여덟 가지 바른 길이란,

바른견해,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  
바른 생활, 바른 노력,  
바른 기억, 바른 마음의 통일이다.

이들 여덟 가지는 욕망을 없애기 위한 ‘바른 길이다.

이 세상은 괴로움으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괴로움으로 부터 벗어 나려는 자는 누구나 번뇌를 끊어 버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번뇌와 괴로움이 없어진 경지는 깨달음으로서만 도달 할 수 있다.

깨달음은 이 여덟 가지 바른 길에 의해서만 도달 할 수 있다.



覺 각

『팔리 율장 대품』 『팔리 상응부 56-11-1 전법륜경』

사람들의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고, 사람들의 깨달음에는 길이 있듯이 모든 것은 모두 그 연에 따라 생기고 연에 따라 멸하는 것이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잎이 지는 일은 모두 연에 의해서 생기고 연에 의해서 멸하는 것이다.

이 몸은 부모를 연으로 하여 태어났으며 음식물에 의하여 유지되며, 또 그 마음도 경험과 지식에 의하여 길러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몸과 마음은 둘 다 연에 의하여 성립되어 연에 의하여 변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물의 눈이 서로 이어져서 그물을 이루듯이 모든 것은 서로 이어짐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나의 그물의 눈이 그것만으로 그물의 눈이라고 생각 한다면 큰 잘못이다.

그물의 눈은 다른 그물의 눈과 서로 이어져서 비로소 하나의 그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각의 그물의 눈은 다른 그물이 이루어지는 데에 필요한 것이다.

꽃은 피는 연이 모임으로써 꽃은 피어나고, 잎이 지는 연이 모여서 낙엽이 진다.

홀로 피고 홀로 지는것은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인연에 의하여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원래 차별은 없다. 차별을 보는 것은 사람들의 어리석은 편견 때문이다.

넓은 하늘에는 동서의 구별이 없는데 사람들이 동서로 차별하여 ‘동쪽이다 서쪽이다.’ 라며 집착 한다.

수는 본래 하나부터 무한의 수에 이르기까지 각기 완전한 수이고, 양에는 많고 적음의 차별이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욕심으로 재서 많고 적음의 차별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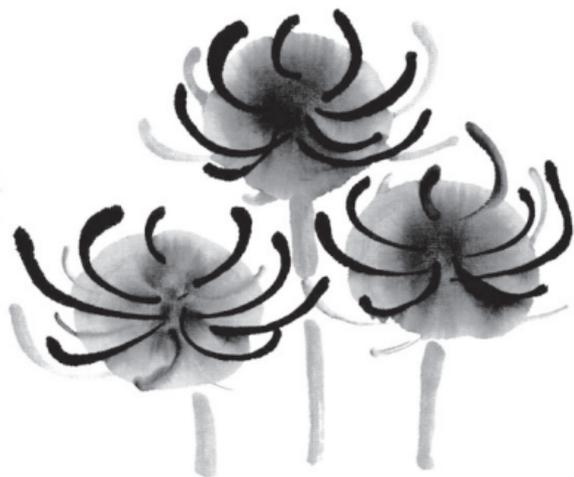
본래 생도 없고 멸도 없는데 생사의 차별을 하며, 또 인간의 행위 그 자체에는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선악의 차별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편견에서 나온 것이다.

부처님은 이런 차별을 떠나셨기에 세상은 하늘에 뜬 구름과 같고 허깨비와 같은 것이어서, 버리는 것이나 취하는 것이나 다 부질 없다고 보시며, 외형의 유희과 마음이 짓는 모습을 여의고 있다.

나무 토막 하나가 큰 강을 떠다니고 있다고 하자. 그 나무가 좌우의 언덕에 접근하지 않고, 종류에 가라 앉지도 않고, 육지로 올라오지도 않고, 사람에게 건져지지도 않고, 소용돌이에도 말려들지 않고, 안에서부터 썩지도 않는다면 언젠가 그 나무 토막은 바다로 흘러 들어갈 것이다.

이 나무토막의 비유처럼 안에도 밖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유(有)나 무(無)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율음과 그림에도 사로잡히지 않고, 미혹을 떠나 깨달음에 얽매이지 않는다면 그러한 사람은 중도를 따르는 것이다.

도를 닦는 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양극단을 떠나 항상 중도를 걷는 것이다.



「잡아함경」 「범망경」

깨달음을 구하는 자가 배워야 할 세 가지가 있다. 그것은 계율과 마음의 통일과 지혜의 삼학이다.

계란 무엇인가?

사람으로서 또 도를 닦는 자로서 지켜야 할 계를 지키고 심신을 통제하고 다섯 가지의 감각기관의 입구를 지켜서 작은 벌과 죄도 두려워하고 선행을 하며 노력하는 것이다.

마음의 통일이란 무엇인가?

탐욕을 여의고 악심을 여의고 차례로마음의 안정에 드는 것이다.

지혜란 무엇인가?

네 가지 진실을 아는 것이다. 그것은

이것이 고통이다,

이것이 고통의 원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이다,

이것이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명백히 깨닫는 것이다.

이 삼학을 성실하게 배우는 자가 부처님의 제자라 불리운다.



## 공 (空)

사물이 평등하여 차별이 없는 것을 공이라한다.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은 실체가 없고, 생하는 것도 멸하는 것도 없고, 그것은 말로는 표현할 수 없으므로 공이라고하는 것이다.

모든 것은 서로 관계하여 성립되고, 서로 모여 존재하는 것이다. 홀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사물에는 빛과 그림자, 길고 짧음, 흑과 백이 있는 것처럼 사물 그 자체의 본질이 오직 홀로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무자성이라 한다.

또 미혹을 떠나서 깨달음이 없고, 깨달음을 떠나서 미혹이 없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반대 되거나 어긋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물에는 두 가지의 상반된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다.

## 물에 담겨짐에 사각형은 없다

번뇌의 티끌에 싸여 있으면서도 물들지도 더럽혀지지도 않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이 있다.

둥그런 그릇에 물을 담으면 둥글게 되고, 네모진 그릇에 물을 담으면 네모가 된다. 그러나 본래 물에 둥글거나 네모진 것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은 이런 일을 잊고 물의 형태에만 얽매어있다.

사람은 선과 악을 보고, 좋고 싫어함을 느끼고, 유와 무를 생각하며, 그 생각의 부림을 받고, 그 견해에 묶여 밖의 것을 쫓아 다니며 괴로워 하는 것이다.

속박당한 가공적이고 거짓된 견해를 밖의 연에 돌리고, 속박당한 적이 없는 자기의 본성으로 돌아오면, 몸과 마음은 번뇌에 방해받지 않는 자유로운 경지를 얻을 것이다.

『수능엄경』



心 심

칭정한 본심이란 말을 바꿔서 말하면 불성이다. 즉 부처가 될 씨앗이다.

부싯풀에 렌즈를 들이대고 태양빛 아래에서 불을 일으킬때 과연 그 불은 어디서 오는것일까? 태양과 렌즈와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으며, 태양의 열기가 렌즈를 연으로 하여 부싯풀에 나타난 것만은 의심할 수가 없다. 또 아무리 태양이 내려 쪼여도 부싯풀에 불이 붙는 성질이 없다면 부싯풀에는 불이 붙지 않는다.

이제 부처를 낳는 근본인 불성 즉 부싯풀에 부처님의 지혜의 렌즈를 대면 부처의 불(火)은 불성이 열리는 믿음의 불로서 사람들 즉 부싯풀에 불길이 붙게 된다.

부처님은 그 지혜의 렌즈를 들어 세계에 대게 되므로 온 세상에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는 것이다.

『수능엄경』



智慧 지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도 성취할 수 없는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 늙어가는 몸이면서  
늙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둘째, 병든 몸이면서  
병들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

셋째, 죽어야 할 사람이면서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넷째, 멀해야 할 것을  
멀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

다섯째, 다해야 할 것을  
다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세상의 범인들은 이 피하기 어려운 일을 당하여 부질없이 고뇌하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피하기 어려운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어리석은 괴로움에 시달리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으로 멈추지 않는다. 오직 자비만이 원한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것이 불변의 진리이다. (5)

자신의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은 더 이상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고 현명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63)

전장에 나아가서 수 천 명의 적과 싸워 이기기보다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전사이다. (103)

백년을 살더라도 위 없는 진리를 만나지 못한다면 진리를 만난 사람의 단 하루의 삶만도 못하리라. (115)

사람으로 태어나기는 어렵고, 지금 살아있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다.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시는 일은 매우 어렵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은 보통의 인연이 아니고서는 어려운 일이다. (182)

모든 악을 멀리하고 모든 선을 행하며 자신의 마음을 맑게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183)

자식도, 부모도, 일가 친척들 조차도 죽음에 이른 나를 구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 (288)

옛날 수다나(선재)라는 동자가 있었다. 이 동자도 역시 오로지 도를 구하여 깨달음을 원하는 자였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를 찾아가서 바다의 신비로부터 얻은 가르침을 들었다. 사람의 병을 진단하는 의사로부터는 사람을 대하는 마음은 자비가 아니면 안된다는 것을 배웠다. 또 재산을 많이 가진 장자를 만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들었다.

또 좌선하는 출가승을 찾아가서는 그의 고요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모습 속에 그대로 드러나 사람들의 마음을 맑게 하고 고요하게 만드는 불사의 힘을 주는 것을 보았다. 또 품위 높은 마음을 가진 부인을 만나서는 그 봉사의 정신에 감탄하고 자비심이 지혜의 열매임을 알았다. 또 한번은 치열하게 수행하는 방랑 노인을 만나서는 진실로 진리를 구하려면 칼날이 빼곡하게 꽃혀 있는 산에라도 오르고 불 속이라도 헤쳐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이와 같이 동자는 마음만 있으면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모두가 다 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연약한 여인에게도 깨달음의 마음이 있으며, 골목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에게도 진실한 세계가 있음을 보았다. 순박하고 겸손한 사람을 만나서는 순리에 따르는 순수함의 명쾌한 지혜를 깨달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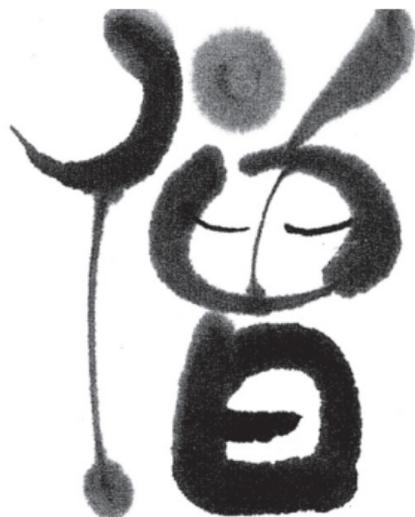
향을 피우는 길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으며, 꽃을 장식함에도 깨달음의 말씀이 있었다. 어느날 나무의 그늘에서 쉬고있을 때 그는 근처에 썩는 나무에서 새순 하나가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생명의 덧없음을 배웠다.

한낮에 내려 쪼이는 눈부신 태양과 밤하늘을 수놓은 반짝이는 별들을 쳐다보면 깨달음을 구하는 선재동자의 마음을 가르침의 빗물로 촉촉하게 적셨다.

동자는 발길이 닿는 곳마다 진리를 물었고 이르는 곳마다 말씀을 들었으며 도달한 곳곳에서 깨달음의 모습을 보았다.

정말로 깨달음을 구하려면 마음의 성을 지키고 마음의 성을 장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경건하게 이 마음의 성문을 열어 그 깊숙한 곳에 부처님을 모시고 심신의 꽃을 공양하여 환희의 향을 바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동자는 배웠던 것이다.

『화엄경 입법계품』



僧 승

키사코타미라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녀는 유복한 가정의 며느리였는데 어느 날 꿈직이도 사랑하던 어린 외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녀는 슬픔을 견디다 못해 반미치광이가 되어 차갑게 식어버린 시체를 안고 거리로 나섰다. 그녀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죽은 자식을 살려 달라고 하소연 하였다.

이 미친 여자를 사람들은 그저 바라보고만 있었는데, 부처님의 신자가 그녀를 보고 기원정사에 계신 부처님을 찾아가라고 권하였다. 그래서 그 여자는 곧 아이의 주검을 안고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달려갔다.

세존은 불쌍하게 여기시어 여인의 모습을 지켜 보시다 이렇게 말씀하였다. “여인이여! 이 아이의 병을 고치려면 겨자씨가 필요하다. 마을에가서 너댓알만 얻어 오도록 해라. 그런데, 그겨자씨는 아직까지 한번도 죽어 간 적이 없는 집에서만 얻어 와야 한다.” 라고 하였다.

제정신이 아닌 어머니는 마을로 가서 겨자씨를 얻으려 했으나, 겨자씨는 많은데 아직까지 죽어서 나간 적이 없는 집은 어디에도 없었다. 결국 겨자씨를 구하지 못한 채, 세존 앞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세존의 고요한 모습을 접하는 순간 그제서야 세존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마치 꿈에서 깨어난 것처럼 자식의 차디찬 주검을 땅에 묻고서 세존에게 귀의하여 제자가 되었다.

『팔리 장노니게 주석』

돈은 많으나 어리석은 사람이 있었다. 남의집이 삼층집으로 높이 솟아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나도 돈이 있으니 높은 집을 짓겠다고 마음 먹었다.

목수를 불러다가 일렀다. 목수는 그대로 기초를 만들고 이층까지 올리고 삼층까지 올리려고 하였다. 그 때 주인이 황급히 소리를 지르며,

“내가 지으려는 것은 기초도 아니고 일층도 아니고 이층도 아니고 삼층의 높은 누각이다. 어서 그것을 만들라.” 라고 하였다.

어리석은 자는 노력할 것을 모르고, 오직 좋은 결과만을 기대 한다. 그러나 기초 없는 삼층이 있을 수 없듯이,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는 없다.

「백유경」



어떤 뱀의 머리와 꼬리가 어느 날 서로 앞으로 나가려고 다투었다. 꼬리가 말하기를, “머리야! 너는 언제나 앞에 있는데, 그것은 바른일이 아니야. 때로는 나를 앞에 두는 것이 좋아.”

머리가 대답하기를,

“내가 언제나 앞에 있는 것은 옛날부터 그래왔어. 너를 앞에 둘 수는 없어.” 라고 하였다.

서로 앞장 서겠다고 다투었으나 싸움은 끝나지 않고 역시 머리가 앞에 있게 되자 꼬리는 화가 나서 꼬리를 나무에 감아 머리가 앞에 가는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머리는 힘이 빠져 기진맥진하자 꼬리는 나무에 감은 것을 풀고 자기가 앞으로 나아갔다. 하지만 결국은 불구멍으로 떨어져 타죽어 버렸다.

일에는 모두 순서가 있고, 각자 다른 일이 주어져 있다. 불평을 늘어 놓아 그 순서를 어지럽혀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멀해 버리는 것이다.

『백유경』





히말라야 산기슭에 있는 어떤 대밭에 많은 새들과 짐승들과 함께 앵무새 한 마리가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 대나무끼리 서로 마찰되어 불이 일어났다. 불은 바람을 타고 크게 번져, 새도 짐승도 도망칠 곳이 없어 울부짖고 있었다.

앵무새는 먼저 오랫동안 보금자리를 마련해준 대밭의 은혜를 갚고자, 그리고 많은 새나 짐승들의 재난을 안타깝게 여겨 그들을 구하기 위해 가까운 못으로 가서 날개에 물을 적서다가 공중으로 올라가서 불길 위에도 물을 뿌렸다. 이처럼 대밭에 대한 은혜를 갚으려는 생각과 끝 없는 자애의 마음으로 쉬지 않고 그렇게 계속 하였다.



앵무새의 자비와 헌신의 마음은 천계의 신을 감동 시켰다. 신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앵무 새에게 말하였다.

“너의 생각은 가특하나, 이렇게 큰 불을 어찌 그 날개에 적신 물로 끌 수 있겠느냐?”

앵무새는 대답했다.

“은혜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하는 일과 자비의 마음에서 하는 일이 되지 않을리가 없습니다. 나는 어떻게 하든지 합니다. 저세상에 가서라도 하고야 말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신은 앵무새의 위대한 뜻에 감동되어 힘을 합쳐서 산불을 껴다.

「잡보장경」

수목의 심을 구하기 위하여 숲 속으로 들어간자가 지나 앞사귀를 얻고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은 나무의 심을구하는 것이 목적인데도 그 외피나 내피 또는 나무의 살만을 얻고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한다.

사람의 신상에 다가온 생과 노와 병과 사와 걱정, 슬픔, 아픔과 괴로움을 여의기를 바라며 도를 구한다. 이것이 심인 것이다.

그것이 자그마한 존경과 명예를 얻어서 만족하여 마음이 오만해지고 자신을 추켜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지엽을 얻었을 뿐인데 심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또 자신의 마음이 어느 만큼 안정을 얻었다고 해서 그것에 만족하여 마음이 거만해져서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업신여기는 것은 나무의 내피만을 얻고 심을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또 자신의 자그마한 노력에 만심하여 바라는것을 다 얻은 것처럼 생각하여 만족하여 마음이 오만해져서 자신을 추켜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나무의 외피만을 얻고 그 심을 얻은 것으로 알고 있는 것과 같다.

또 사물을 직관하는 통찰력이 조금 생기자 이것에 눈이 어두워 마음이 거만해져서 자신만을 추켜세우고 남을 비방하는 것은 나무의 살만을 얻고 그 심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 이들은 모두 기운이 늦추어져서 태만하여 또다시 고통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도를 구하는 자에게는 존경과 명예와 공양을 받는 일이 그 목적은 아니다. 자그마한 노력이나 다소의 마음의 안정, 또는 알팍한 지식과 통찰력이 그 목적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생과 사의 근본적인 성질을 마음 속에 새겨두지 않으면 안된다.

『팔리 중부 대수심유경』

## 육바라밀이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의 여섯가지이다. 이 여섯 가지를 닦으면 미혹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건너갈 수가 있어 육도(六度)라고 한다.

보시는 아까워하는 이기적인 마음을 물리치게 해주며, 지계는 행을 바르게 해주며, 인욕은 분노하기 쉬운 마음을 다스리게 해주며, 정진은 게으른 마음을 없애주며, 선정은 흩어지기 쉬운 마음을 고요하게 해주며, 지혜는 어리석고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여 예리한 통찰력으로 바뀌게 해준다.

보시와 지계는 큰 성을 쌓는 주춧돌과 같이 수행처가 되고, 인욕과 정진은 성벽처럼 외부의 적을 막아주고, 선정과 지혜는 몸을 지켜서 생사의 공격을 막아주는 무기이며 갑옷이다.

베풀고 난 뒤에 후회한다든지 베풀고 나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최상의 보시는 아니다.

베풀고 나서 즐거워하고 베꾼 자기와 베품을 받는 사람과 베꾼 것, 이 세 가지를 함께 잊어 버리는 것이 최상의 보시다.

바른 보시는 그 보답을 바라지 않고 맑은 자비의 마음으로써 타인도 자신과 함께 깨달음에 들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면 안된다.

『화엄경 명유품』 『대반열반경』

세상에 무재(無財)의 칠시라고 불리는 것이 있다. 재산이 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곱 가지 보시행을 말한다.

첫째는 신시 곧 육체에 의한 봉사이며 그 최고의 보시는 사신행이다.

둘째는 심시, 곧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에 대하여 생각해 주는 마음이다.

셋째는 안시 곧 부드러운 눈빛을 가지는 일로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온화하게 되는 것이다.

넷째는 화안시 곧 부드러운 웃음이 끊이지 않는 일이다.

다섯째는 언시 곧 생각해 주는 마음이 담긴 따뜻한 말을 거는 일이다.

여섯째는 상좌시 곧 자기 자리를 양보하는 일이다.

일곱째는 방사시 곧 자기 집을 하룻밤의 숙소로 제공하는 일이다.

이상의 칠시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며 일상 생활에서도 항상 행할 수 있는 일이다.

『잡보장경』

세존의 제자 슈로나는 부호의 집에 태어났는데 날 때부터 몸이 약했다. 세존을 만나서 그 제자가 되어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뼈아픈 노력을 계속하여 도를 닦았으나 아직 깨달음을 얻을수가 없었다.

그러자 세존은 슈로나를 가엾게 여겨 말씀하셨다.

“슈로나여! 그대는 집에 있을 때에 가야금을 배운일이 있었을 것이다.

줄을 땄 때 줄이 너무 팽팽하거나 너무 느슨하거나 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

가장 적절하게 매어졌을 때 비로소 좋은소리를 내는 것이다. 깨달음을 얻는 길도 이와 같아서 게으르면 도를 얻지 못하고 또 너무 다그쳐 노력해도 결코 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노력을 할 때에도 그 정도를 잘 생각하고 현명하게 행동해야 한다.”

이 가르침을 받고 슈로나는 능히 터득하여 드디어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었다.

「팔리 장노게 주석」



## 자등명 (自燈明) 법등명 (法燈明)

세존은 쿠시나가라의 교외 사라나무 숲 속에서 최후의 가르침을 설했다.

“제자들이여! 그대들은 각자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남을 의지해서는 안된다. 이 법을 등불로 삼고 의지처로 삼아야 한다. 다른 가르침을 의지처로 삼아서는 안된다.

“제자들이여! 지금까지 그대들에게 설한 나의 가르침을 늘 떠올리고 늘 생각하고 늘 닦아서 저버려서는 안된다. 만약에 가르침대로 행하면 늘 행복에 넘칠 것이다.

가르침의 요점은 마음을 닦는 데 있다. 그러므로 탐욕을 억제하여 스스로를 이기고자 노력해야만 된다. 탐욕을 멈추고, 화를 내지 않으며, 악을 멀리하고, 늘 덧없음을 잊어서는 안된다.

마음에 이끌리지 말고 마음의 주인이 되라. 마음은 사람을 부처로 만들기도 하고 또는 짐승으로 만들기도 한다. 미혹하여서 귀신이 되거나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것은 모두가 이 마음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바르게 하고 바른 길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자들이여! 나의 종말은 이미 가까워졌다. 이별도 멀지 않다.

그러나 부질없이 슬퍼말라. 세상은 무상하니 태어나서 죽지 않는 자는 없다. 지금 내 몸이 낡은 수레처럼 부서지는 것도 이 무상의 도리를 몸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부질없이 슬퍼하지 말 것이며, 이 무상의 도리를 알아서 인간 세상의 진실한 모습에 눈을 뜨지 않으면 안된다.

변하는 것을 변하지 않게하려는 것은 무리한 바람이다.

번뇌라는 적은 항상 그대들의 약점을 엿보며 그대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다. 만일 그대들의 방에 독사가 있다면 그 독사를 내쫓지 않고는 마음 놓고 그 방에서 잘 수는 없을 것이다.

번뇌의 적을 쫓아 버려야 한다. 번뇌의 독사를 내쫓아야 한다. 그대들은 삼가 그 마음을 지켜야 한다.”

“제자들이여! 지금은 최후의 시간이다.

그러나 이 죽음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육신이 부처의 본질은 아니다. 본질은 깨달음이다.

육체는 여기서 멀해도 깨달음은 영원히 법과 도에 살아 있다. 그러므로 나의 육신을 보는 자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나의 가르침을 아는 자만이 나를 본다.



灯明 등명

내가 죽은 뒤에는 내가 남겨놓은 법이 그대들의 스승이다. 나를 섬기듯이 법을 잘 지키고 소중히 지녀야 한다.

제자들이여! 나는 이 인생의 후반 45년 동안 설해야 할 것은 모두 다 설했으며 해야 할 일은 다 하였다.

나에게는 이제 아무런 비밀도 없다. 안도 없고 밖도 없고 모두 다 완전히 설해 버렸다. 제자들이여! 이제야말로 나의 최후의 시간이 다가 왔다.

나는 지금부터 열반에 들 것이다.

이것이 나의 최후의 가르침이다.”

『장아함경』 『유행경』 『반열반경』



\* 열반 =: 마치 촛불을 불어서 끄는 것과 같이 욕망의 불을 불어서 끊음에 도달한 경지로서 이에 도달함을 「입열반(入涅槃)」이라해, 이에 도달한 사람을 「불타(佛陀)」라고 부른다. 석가모니불이 돌아가셨을 순간을 「입열반」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육체가 멸했을 때를 완전히 번뇌의 불이 꺼졌다고 하는 사고에서 일반적으로는 35세에 부처님이 되셨을 때 「열반」의 상태에 달했다고 한다.

## 한국 불교의 종파

약 2500 년 전에 인도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에 의해서 창시 된 불교는 중앙 아시아 · 중국을 거쳐 4 세기경 한반도에 전래 되었다.

이래 현재에 이르기까지 약 1600 여년의 오랜 역사를 거쳐오는 중에 많은 종파가 중국으로부터 전해 지면서 한반도 특유의 종파도 한국인에 의해 새롭게 창시 되기도 했다. 이들은 후대에 독립적으로 창시한 종파들과는 달리 일종의 불교학의 학파적 존재가 현저 했음이 그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고구려】 372 년에 진나라 왕 부견이 고구려에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전을 전해 주었다. 그 이후 약 2 년 뒤에는 승려 아도가 건너 왔다. 고구려왕은 이 두 승려들을 위해서 ‘성문사’ 와 ‘이불란사’ 라는 절을 세웠다. 이들이 우리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불교 사원이다.

【백제】 384 년에 인도 출신의 승려 마라난타가 불교를 전하기 위해 동진에서 건너 왔다. 그 다음해에 비로소 한산에 불교 사원이 건립 되었다. 동명성왕의 재위시기 (523-554) 에는 백제의 승려 겸익이 인도로부터 인도의 승려와 함께 율장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전을 가져와 백제불교의 발전에 크게 공헌하였다.

【신라】 528 년에 공인 되어 호국불교의 영향으로 676 년에 삼국을 통일하게 된다. 이 통일신라시대에는 자장 (7 세기), 원측 (613-696) 원효 (617-686), 의상 (625-702) 등과 같은 지혜와 덕을 겸비한 다수의 학승들이 배출되어 원측은 현장에게 사사하여 유식 법상학을 배우고, 당에 머물러 서명사 계통이라는 법상종의 하나의 학파를 형성했다. 의상은 화엄교학의 대성자인 법장과 함께 지엄에 사사하여, 신라에 돌아와 화엄 교학을 확립하였다. 이들의 활약은 신라불교가 중국불교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전개된 것임을 말해주고 있다. 원효는 교학상의 여러 다른 입장들을 조화시키는 ‘화쟁사상’ 을 설하였고, 이것이 후대의 한국 불교의 전통을 형성하게 된다. 또한 대중들 사이에 이런

가르침이 널리 전해진 데에는 혜숙, 혜공, 태현, 원효와 같은 승려들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특히 원효가 퍼뜨린 염불을 중심으로 한 정토교의 실천 사상은 일반 대중들 사이에 널리 퍼졌다. 한편 신라 후대에는 선불교가 유력한 가르침으로서 급속하게 발전 하였다.

【고려시대 (935-1392)】 불교는 국가 종교의 지위를 계속 유지 하였다. 태조왕 (재위 918-943) 은 고려의 건국이 부처의 가호에 의한 것으로 믿고, 불교의 강력한 지지자가 되어 많은 사탑을 건립하였다. 이 시대에는 선불교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아 최절정기를 이루었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한국불교의 성격을 이루고 있다. 1190년에 지눌 (1158-1210) 은 “선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는 부처의 말이다.” 라고 선언에서 알 수 있는것과 같이 「선종, 禪宗」 과 「교종, 教宗」 으로 크게 분립 하였다. 이것은 넓게 한국이나 중국에서 반복되었던 주장이기도 했다. 또한 이 시대에 『고려대장경』 이 조판되었고, 이것은 세계 최고의 대장경 가운데 하나이다.

【조선시대 (1392-1910)】 는 유교를 숭앙하였고, 불교는 점차로 쇠퇴하게 된다. 제 3대 태종왕 (재위 1410-1418) 은 사원을 철폐하고, 사찰에 속한 토지등을 국유화 하였으며, 도첩제를 엄격하게 실시하는 등 배불 정책을 폈다. 이러한 박해는 조선 왕조의 500년간 계속 되었고, 결과적으로 마을이나 도심에서 불교는 사라지고, 불교의 사원은 산중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그 영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남아있다. 1910년에는 일본의 식민 정책의 시작으로 불교 교단도 그 영향을 받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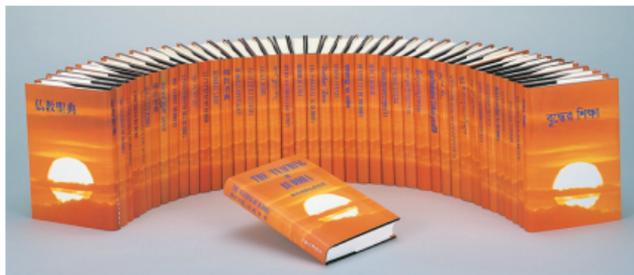
【1945년 이후의 한국】 1945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서 해방 이후에는 일본 종파 불교의 잔재인 승려의 대처 문제가 하나의 쟁점으로 되어, 한국 불교는 크게 출가 중심의 조계종과 재가 승려들을 중심으로한 태고종으로 분립하게 된다.

그 이후 출가 중심의 조계종이 한국 불교에서 최대의 종파로서 그 명맥을 유지하고, 현재는 재가를 중심으로한 태고종, 진각종 등 다양한 종파가 새롭게 형성되어 있다.

# 『불교성전』은 오늘도 세계에서 읽혀지고 있습니다

불교성전 협회는 살아있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 세계에서 한 사람이라도 많은 사람들이 이해 하시기를 바라면서 『불교성전』을 세계 각지에 보급 할 것을 염원해 이미 약 932 만권 이상을 보급 했습니다.

더욱이 모국어로서 읽을 수 있도록 일영대조, 영문, 일본어를 시작해 세계 각국어 번역본을 간행해 현재 46 개 언어 성전이 발행되, 호텔, 병원 등에서의 기증은 세계 64 개국, 1 만 5000 시설 · 158 만실 이상 입니다. 부처님의 기본적인 가르침의 엷센스를 친숙해지기 쉬운 현대어로 표현한 『불교성전』은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오늘도 사람들의 살아있는 지침으로서 일상 생활의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Available Editions.

Arabic  
Bengali  
Bulgarian  
Cambodian  
Chinese(Traditional)  
Chinese(Simplified)  
Danish  
Dutch  
Dzongkha  
English  
Esperanto  
Finnish  
French  
German  
Greek  
Hindi  
Indonesian  
Italian  
Japanese  
Kazakh  
Korean  
Kyrgyz  
Magyar  
Malayalam  
Mongolian(Cyrillic)  
Mongolian(Mongolian)  
Myanmar  
Nepali  
Norwegian  
Persian  
Polish  
Portuguese  
Rumanian  
Russian  
Serbia-Croatian  
Sinhalese  
Spanish  
Swahili  
Swedish  
Tagalog  
Thai  
Tibetan  
Turkish  
Urdu  
Uzbek  
Vietnamese



**BUKKYO DENDO KYOKAI**

Society for the Promotion of Buddhism

公益財団法人 仏教伝道協会

〒 108-0014 東京都港区芝 4 丁目 3-14

TEL:(03) 3455-5851

FAX:(03) 3798-2758

<http://www.bdk.or.jp/>

